**<졸업프로젝트>**

1. **주제가 나오게 된 배경**
   * 스마트 헬스케어가 대세.
     + http://www.bloter.net/archives/235819
     + **의료서비스의 미래, 스마트 헬스케어**
   * 현재 아침 일찍 또는 점심시간에 병원을 방문할경우, 동네 병원에서는 이름을 적고 기다리거나 간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, 양심적인 순서로 등록한다.
   * 병원 진료 기록은 나에 관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, 내가 차트를 소지하거나 진료목록을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.
2. **타겟**
   *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
3. **해결방안/주요기능**
   * 대기목록
     + 들어올 때 휴대폰 nfc를태그하거나, 블루투스 연결하면, 또는 기기에 본인의 QR코드를 읽히면 대기목록에 작성됨 + 내 앞에 몇 명이 남았는지 볼 수 있음.
   * 진료기록
     + 자세한 차트는 아니더라도, 몇월 며칠에 병원에 갔고, 왜 갔는지 리스트로 볼 수 있음(두통, 감기, 위염, 장염, 등등의 간단한 병명)
       - 최종적으로는 데이터가 쌓이게되면, 어느 시기에 감기/몸살이 걸렸었고, 어느 시기에 장염이 걸렸는지 등 패턴을 볼 수 있음.
       - 환절기에 감기가 걸린다 -> 환절기가 되기 1-2주 전에 미리 알려줘서, 몸관리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한다.
       - 날씨가 몇도일 때 장염이 걸린다 -> 장염이 걸린 평균 온도를 계산해보고 그 온도가 되기 전에 미리 알려준다.(음식 챙겨먹을 수 있도록)
       - 분석해야 할 항목 : 계절, 온도, 미세먼지농도, 황사, 등등
     + 병원 간 날을 클릭하면 어느 약을 처방받았는지 리스트를 보여줌. ( 약의 생김새와, 무슨 역할을 하는 약인지 정보)
   * 셀프 건강관리
     + 고혈압, 당뇨 등 꾸준히 관리해야하는 질병이 있다면, 기록할 수 있고, 그래프로 시각적으로 보여준다. 적정수준 이상을 넘었을 경우에는 그에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보여준다.(당뇨에 좋은 음식 등)
4. **비슷한 어플**
   * <http://kr.aving.net/news/view.php?articleId=1092965>
     + 2014-08-28
     + 세브란스 병원, 여의도 IFC 검진센터 등 서울시내 종합병원 및 대형 검진전문기관 각 2곳에 설치 운영한 결과, 시스템 안정성과 고객만족도가 높아 전국 병원으로 확대 공급한다고 밝혔다.
   * <http://www.doctors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03305>
     + 2015.04.29
     + ▲진료예약 상황 ▲진료실 위치 ▲실시간 대기 순서 등도 안내 받을 수 있다. 이와 함께 본인의 진료카드 바코드가 내장돼 있어 이전에 받았던 모든 진료 기록과 ▲원외 처방전 내역 ▲종합검진 결과 ▲진료비 등을 확인할 수 있다. 또 어플 하나로 진료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주자창 이용 시에 자동으로 정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.
     + 건강수첩 어플은 환자가 직접 혈압·당뇨·고지혈·비만도 등을 수시로 기록할 수 있다.  ▲소아·성인 예방접종 ▲숙녀노트 ▲종합결과 ▲기타검사 ▲처방전기록 등 개인의 건강이력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.
   * <http://www.dt.co.kr/contents.html?article_no=2014102102109919807008>
     + 2014-10-21
     +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병원 측의 진료기록 제공 없이 환자 스스로 정보를 기록해야 했던 점에서 벗어나 병원과 환자가 개인의료기록을 두고 쌍방향으로 소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.
     + 만약, 환자가 이 앱을 이용해 병원 측에 치료요약정보를 요청하면 수술 당시 유방암의 크기와 위치, 림프선 전이 여부, 방사선·항암 치료 여부, 처방 약물, 바이오마커 유무 등 환자 치료와 관련된 요약정보를 받아 앱에 담아둘 수 있다. 이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응급상황이 생겨 다른 지역에서 병원에 가야 할 때 해당 의료진이 곧바로 앱을 통해 환자의 간단한 병력 정보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처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.
   * <http://www.ddaily.co.kr/news/article.html?no=88003>
     + 2012.02.23
     + 그러나 종이처방전은 계속 발급받아야 한다. 현행 의료법상 병원에서 종이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.